

2024. 6. 25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5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처

운영처장

이광수

02-3660-2101

운영총괄팀장

박찬윤

02-3660-2111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

www.swr.or.kr

##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상하수도협화광역 환경공단과 하수도 기술지원 나선다

- 6.24(월),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하수도 분야 6개 지방공기업 업무협약 체결
- 지역수계 특화 하수도 전문가 지원 등 중소 지자체 맞춤형 선진기술 지원 주력
- 공단 보유 인적·기술적 자원 총동원해 국가 물환경 보전과 발전에 기여할 것

- 지방 하수도 6개 공기업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기술지원에 나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.
- 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사장 권완택, 이하 공단)은 6월 24일 한국상하수도 협회(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, 이하 협회) 및 5개 하수도 분야 지방공기업과 ‘광역권 하수도 기술지원 협력체계 구축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 - 하수도 분야 지방공기업은 공단을 포함해 부산환경공단, 인천환경공단, 광주 환경공단,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총 6개 기관이다.
-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7개 기관은 △ 기술지원 체계 구축 협력, △ 각 기관 보유 인적·기술적 자원 공유, △ 선진기술 습득 위한 기회의 장 마련, △ 공동 연구 및 워크숍을 통한 기술개발과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- 이를 통해 기존에 협회가 보유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수계에 이해도가 높은 지방공기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 지방자치단체와 관리대행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선진기술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.
  
- 또한 각 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는 등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.
  
-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이사장은 “하수도 전문가들이 경험한 선진 기술을 공유해 중소 지방자치단체를 돕는다면 우리나라 하수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”이라며, “공단이 보유한 인적·기술적 자원을 총동원해 국가 물환경 보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붙임 하수도 기술지원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식 사진



사진1. 업무협약 체결



사진2. 업무협약 체결